

파키스탄 개발포럼

I. 주요 내용

- 금번 포럼은 “Demographic Dividend – Unleashing the Human Capital”을 주제로 개최된 바, 파키스탄 정부 측은 빈곤퇴치 및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개발계획을 총 11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소개
 - 특히, 특별 세션으로 FATA 개발포럼을 개최하여 아프가니스탄 접경 저개발 FATA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
-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은 파키스탄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, 파키스탄 정부가 거시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강조
 - 특히, FATA 개발계획과 관련, 동 지역의 치안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지적
- 금번 포럼은 파키스탄의 빈곤퇴치, 산업발전, 내수와 무역, 수자원 및 전력, 도시와 농촌 등 각종 분야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,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
- 다만, 금번 포럼은 파키스탄 인구구성의 변화를 어떻게 인적자본의 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
 - 특히, Demographic Dividend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 확대 및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구체적 접근 미흡

II. 상세 내용

1. 개막식 연설자 및 연설 주요내용

가. Shaukat Aziz 파키스탄 총리

- 파키스탄의 2005/6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7%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며, 1인당 소득은 95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
- 그간의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은 사회의 모든 분야와 전국 각지로 미치고 있음
 - 실업률은 2001/2간 8.3%에서 2005/6간 6.2%로 감소하였으며, 2003-6년간 약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
 - 절대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2001년 34.5%에서 2005년 23.9%로 감소하여, 총 1,300만명이 빈곤상태에서 탈출
- 지진피해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함. 국제사회가 지원을 약속한 56억불 중 지금까지 29억불이 집행되었으며, 모두 12개 구역에서 재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
- 파키스탄의 1억 6천만 인구는 최대의 자산임. 인구의 과반수가 19세 이하이고, 약 1억명이 25세 이하인 바, 파키스탄은 젊은 세대가 노동인력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Demographic Dividend를 얻을 수 있게 됨

- 발전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임. 문맹률은 2001년 55%에서 2006년 46%로 감소함

나. Praful Patel 세계은행 부총재

- 파키스탄이 거시경제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, 경상수지 적자와 경쟁력 면에서 여전히 취약성이 있음. 거시경제의 안정은 파키스탄의 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전략적 토대가 되어야 함
- 파키스탄의 빈곤퇴치에 그간 성과가 있는 바, 세계은행은 2015년까지 극심한 가난을 제거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에 협력할 것임
- 일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투자 유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바, 파키스탄의 인프라 건설에 협력할 것임

다. Liqun Jin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

- 가난에 시달리는 FATA 부족지역의 개발을 돕기 위한 관심이 필요함.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뿐만 아니라, 아프가니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인접국가와의 교역 증진을 위한 것임
- 아시아개발은행이 원조하는 6,000만불 규모

FATA 지역 농촌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.
FATA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는 지역의 치안상
황의 개선과 병행되어야 함

라. Ahmad Mohammad Ali 이슬람개발 은행 총재

-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며, 향
후 파키스탄의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지원
을 약속

2. 세션별 의제 및 주요내용

가. 일반세션 주요 의제 및 내용

1)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and the Demographic Dividend

- 파키스탄 정부 측은 ①거시경제의 안정 ②경
쟁상 우위 활용 ③인적 잠재력 개발 ④금융분
야의 역할 ⑤세계 수준의 인프라 구축 ⑥효율
적 거버넌스 ⑦가난하고 취약한 계층 대상 등
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보고서(초안)을 소개
하고, 2010/11 회계연도까지 향후 4년간 국민
경제 모든 분야에 대한 목표를 제시
- 2010/11년도 7.5%의 GDP 성장률 및 5%의
물가상승률 목표 제시

2) Industrial Growth : Moving up the Competitiveness Curve

- 파키스탄 정부 측은 분야별 기술 증진 및 부가
가치 창출을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
고 있음을 소개하고, 특히 민관협력 및 농촌기
업 현대화의 차원에서 One Village One
Product 개념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

3) National Trade Corridor

- 파키스탄 정부 측은 현재의 낙후된 철로, 도
로, 항만, 공항시설로는 연간 7-8%대의 경제
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고, 향후 6년간 60
억불을 투자하여 국내 물류망을 보강하고 물
류수송능력을 제고하는 계획에 대한 지원을
요청

4) Water, Power and Prosperity

- 파키스탄 정부 측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수자
원 및 전력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Diamer-
Bhasha, Kalabagh, Akhori, Munda,
Kuram 등 대규모 댐 공사에 개발파트너들이
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
- 세계은행측은 단순한 수자원의 배분 보다는
이해당사자간 이익의 객관적 배분이 필요하
며, 인터스 등 수자원 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

가 필요하다고 주장

5) 기타

■ 파키스탄 정부 측은 그간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온 내수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, 농촌경제의 발전이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소개

■ 또한 파키스탄 정부 측은 현재 GDP의 4%를 인프라 및 도시개발에 투입중이며, 향후 5년 이내에 이를 8%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, 현재 진행 중인 금융분야 개혁 현황 및 마이크로 금융 수혜대상 확대 계획 등을 소개

나. 특별세션 : FATA Development Forum

■ 파키스탄 정부 측은 32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접경 FATA 부족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소개하고, 향후 5년간 동 지역의 보건, 교육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총 20억불의 자금 중 약 10억불이 아직 조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의 지원을 요청

■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은 단순히 경제적 조치만으로는 FATA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, 부족지역의 치안상황 개선과 정치개

혁, 그리고 NGO의 역할이 필요함을 지적

- 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 표명

3.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의 반응 및 평가

가. 세계은행

■ 세계은행측은 파키스탄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해 평가하면서도, 특히 농촌빈곤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 요인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잠재적 경제성장 제약요인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

나. 아시아개발은행

■ 아시아개발은행측은 FATA 개발계획 등 파키스탄 정부의 여러 개발계획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, 이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

다. EU

■ EU측은 파키스탄의 경제와 정치에서 군부의 역할을 축소할 것을 요청하고,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해 우려를 표명

라. 미국

- 미국 측은 파키스탄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, 보건, 거버넌스, 경제성장 등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서, 파키스탄의 FATA 개발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위해 다른 개발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
- 미국 측은 향후 5년간 FATA 개발에 7억 5천만불 지원을 약속

마. 기타

- 캐나다측은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, 계획의 이행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, 원조의 효율성은 수원국이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
- 스위스측은 파키스탄이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 예산을 GDP의 4%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

4. 관찰 및 평가

- 금번 포럼은 Demographic Dividend - Unleashing the Human Capital을 주제로 채택한 바, 이는 파키스탄의 15세에서 60세 사이 경제인구가 1981년 48%에서 2006년 57%로 확대된 반면 피부양 인구는 44%에서

37%로 낮아진 상황에서, 인구구성의 변화를 경제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됨

- 금번 포럼은 파키스탄의 산업발전, 내수와 무역, 수자원 및 전력, 도시와 농촌 등 각종 분야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소개함으로써,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

- 다만, 금번 포럼은 포럼 주제와 세션별 의제간 연관성을 부각하지 못한 바, 파키스탄의 인구구성 변화를 어떻게 인적자본의 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

- 특히, 문맹률이 높고 여성인력의 활용이 제한된 파키스탄의 현실에서 Demographic Dividend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확대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, 금번 포럼은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음

- 한편, 파키스탄 정부 측은 저개발 FATA 부족지역을 위한 특별 세션으로 “Fata Development Forum”을 개최함으로써 동지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과 원조국가들의 관심

을 유도하였으나, 동 지역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으로 인해 안전문제에 관한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인 바, 동 지역의 치안문제 선결이

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임

[자료: 파키스탄외교공화국대사관]